

祝 辭

(全 文)

徐 仁 錫

(西江大學校 總長)

金聖鎭 韓國國際文化協會長, 來賓, 그리고 이 회의에 참석해주신 國內 外學者 여러분. 저희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와 韓國國際文化協會가 함께 주최하는 年例의 이 학술모임을 이처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우선 심심한 謝意를 표합니다.

“아세아에서의 共產主義 受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이번 會議는 작년에 이은 연속회의입니다. 共產主義라는 外來思想이 아세아에 受容되는 과정에서 아세아의 傳統的인 政治文化의 맥락속에서 어떤 變形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로서의 共產主義는 현재 어떤 特性들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韓國, 中國, 日本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규명하려는 회의입니다.

지난 半世紀 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아세아를 크게 변모시켜왔습니다. 中國大陸에 共產政權을 세웠으며, 越南을 석권하였고, 韓國社會의 半에 敎條的 共產全體主義 體制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세아 社會가 近代化하는 과정에서 傳統價値가 外來價値와 충돌하여 惹起된 精神的 混亂속에서 國際共產主義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놓은 깊은 상처입니다. 이러한 共產主義 體制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아세아인들의 自由, 民主, 福祉社會 건설 사업은 크나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레닌主義 思想의 唯物論的 기초는 우리 아세아인들이 傳統的으로 지녀왔던 人間精神을 重視하는 價値體系와 相衡되며 또한 그들이 내세우는 階級的 世界觀은 우리의 四海同胞라는 萬人共存의 世界觀과도 충돌하며, 義禮로 표현되며 사랑으로 맺어지는 人間紐帶 형성의 기초에 대

해서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價值衝突로 中國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潛在되어 있는 中國人들의 가치체계에 밀려 퇴색되어가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社會構成員 대부분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想은 萬民平等의 博愛精神과 人間尊嚴性 회복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全人的이며, 기독교의 목표는 全人的 人間解放입니다. 이에 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政治, 經濟로 단순화시키고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經濟的 地位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階級的 敵對關係로 이해함으로써 人間解放의 뜻을 크게 歪曲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단순한 論理에 쉽게 설득당하는 “精神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人間觀과 全人的 人間解放의 길을 이해시키는 작업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극복의 正道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半世紀 동안 우리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政治的 도전에 대응하는 論理, 그리고 그들의 폭력적 혁명수단에 대응하는 또다른 폭력의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人間精神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는데 소홀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理念의 溫床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지 社會體制 등 외형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뜻에서 共產主義를 우리 사회의 기존 價值體系와 文化特質 속에서 재인용해보는 學術的 課業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가 이러한 시각에서 이 重大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意味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國內外 學者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이 會議主題를 논의하셔서 큰 學問的 寄與를 하시게 되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끝으로 이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온 大會議長 李光麟교수, 東亞研究所長 李相禹교수의 勞苦를 치하합니다. 이 회의 성공과 여러분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